

# ‘격무·수당제한·무더위’ 코로나19 광주 공무원들 3중고

### 밤·낮 없는 근무에다 수당 제한...체력은 고갈 “적절한 보상·충원·정기적 근무지 변경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업무가 폭주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이어가지만,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체력 안배를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검체 채취 건수는 ▲1월 4만3818건 ▲2월 4만3982

건 ▲3월 3만4377건 ▲4월 4만8114건 ▲5월 8만405건 ▲6월 6만2343건이다.

광주 지역은 올해 매달 100~200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최근 5·7월 들어 확진자 수가 300명을 웃돌았다. 학교·복지시설·다른 지역 관련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 이외 코로나19 관련 2~3개의 일을 맡고 있다.

지출·회계 업무 담당 사무 공무원이 코로나19 동선 파악·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간호직 공무원은 검체 채취와 행정 업무를 아우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은 9시간(정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긴다. 이들은 평일 14시간·주말 12시간 동안 전수조사, 검체채취·의뢰, 역학·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격무에 걸 맞는 수당 지급과 인원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코로나19 대응 담당자 ‘추가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자치구마다 다르다. 예산을 고려한 추가근무 수당 기준이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5개 자치구 수당 제한선은 평일 4시간·주말 8시간, 또는 평일·주말 8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경우 추가근무 수당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 한 만큼 수당을 받고 있다.

모 보건소 역학 조사관 A씨는 “밤새우는 일도 종종 있다. 사명감을 갖

고 일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피로는 누적 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때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여름철엔 아이스 팩·냉풍기를 사용 하더라도 체력이 금세 바닥난다”며 “7~8월 만이라도 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3~6개월 단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보건소 순환 보직도 근무자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된다.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업무 순환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공무원 C씨는 “야간 근무가 잦은 감염병 대응 업무를 1년6개월 해오고 있어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업무 담당자 충원과 수당 제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순환 보직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고려,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긴 힘들다. 대신 인원 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코

로나19 담당 근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자치구 별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격무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근무 수당 제한선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 ‘생명존중과 안전문제’ 전남도청 유기견, 어떻게 할까요

### 전남도청 공무원 처리문제 ‘갑론을박’



“전남도청 유기견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전남도청에는 지난 봄부터 황갈색의 유기견 한 마리가 배회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부르면 다가오기도 하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경계한다.

자기를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수줍게 머리를 낮추는 황구. 한 때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구의 몸은 야위었고 털의 윤기도 거칠어졌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근근이 끼니를 때우며 전남도청을 배회하는 것이다.

뉴스 기사자는 최근 황구의 사진을 찍어 전남도청에 알렸다. 황구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었다.

이후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자유계

시판에는 황구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청 회계과는 협조 공문을 내고 “최근 청사 내 유기견이 출몰해 도민과 직원들에게 혐오감을 주니, 불특정 직원의 먹이 주는 사례를 금지하며, 유기견의 신속한 포획을 통해 청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A 공무원은 26일 “유기견이 청사 이용객과 도청 직원에게 혐오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유기견은 포획 후 관할 시·군의 유기견보호소에서 10일 정도 공고기간을 내고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혹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A 공무원은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포획 후 끝까지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해당 건물 재고해 주기 바란다. 야위어 가는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진 못했지만, 마음 따뜻한 어느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황구 포획을 반대했다.

B 공무원은 “그래도 우리 청을 찾아온 손임으로 보고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며 “청외대도 선물 받은 개 키우던데, 도청 마스코트로 키우면 안될까. 키우게 된다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A씨 의견에 힘을 보탤다.

반면 흑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유기견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C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유기견한테 먹이 주는 사람은 마음 따뜻하고, 유기견보호소에 보내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나. 본인이 직접 키울거 아니면 이런 글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전남도청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황구를 도청에서 키울 경우 장소, 먹이 공급, 관리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며 “유기견보호소는 안락사가 목적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순천소방서, 분신자살 시도 소화기로 신속히 막아

### 왕조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 진압



순천소방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8분 경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광양시 광양읍 소재 아파트로 출동했다.

현장에 선착한 왕조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집 안에 있는 신고자(50대 남성, 주취 추정)와 접촉하여 대화를 시도했다. 구급대원의 문진 및 상담시 비협조적이던 신고자는 갑자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과 경찰은 라이터를 뺏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대처하였으나 신고자가 여분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자살시도자 몸과 바닥면에 붙었고,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소방교 김성준, 소방사 배요한)이 즉시 복도에 있는 소화기 2대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하고,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구급대원들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분신자살 시도자를 응급처치한 뒤 순천 성가톨릭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배요한은 “신고자가 불을 붙이자마자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구조, 구급대원 또한 모두 화재대응 훈련을 받기 때문에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주 도심 주차 화물차서 숨진 지 수개월 된 50대 발견

### 경찰, 유족 조사·부검 의뢰 통해 사인 규명

광주 도심 공원 주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숨진 지 수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세워진 1t 화물차 뒷좌석에서 50대 후반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 주민은 트럭 주변에서 나는 악취에 차량 문을 열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패 정도 등으로 미뤄 A씨가 숨진 지 수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지병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